

2021 세광교회
온라인 바이블 5

레위기: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정결법

5강

● 정결법(레11~16장) 본문의 구조

음식법	11장
악성 피부병(혹은 곰팡이)	12~14장
각종 유출병	15장
속죄일 규례	16장

● 중요한 제의법적 개념들

- 세상의 만물은 “성”과 “속”,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거룩의 영역

-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 이들은 결코 그 자체로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거룩을 덧입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거룩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분리됨”입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거룩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흠이 없는”제물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정결법

5강

● 속의 영역

- 하나님께 속한 것 혹은 바쳐진 것들이 “성”의 영역에 속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속”의 영역에 속합니다.
- “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나타내는 “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속은 다시 둘로, “정결”과 “부정”으로 나뉩니다.

● 속의 영역 - 정결

- 정결은 “순수” 혹은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정결은 현대어로 말하면 “정상 상태”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 속의 영역 - 부정

- 부정은 정결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즉 순수하지 않음, 불순함과 비정상적인 상태가 부정의 개념인 것입니다.
- 정결과 부정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사물의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말한단기보다는 신학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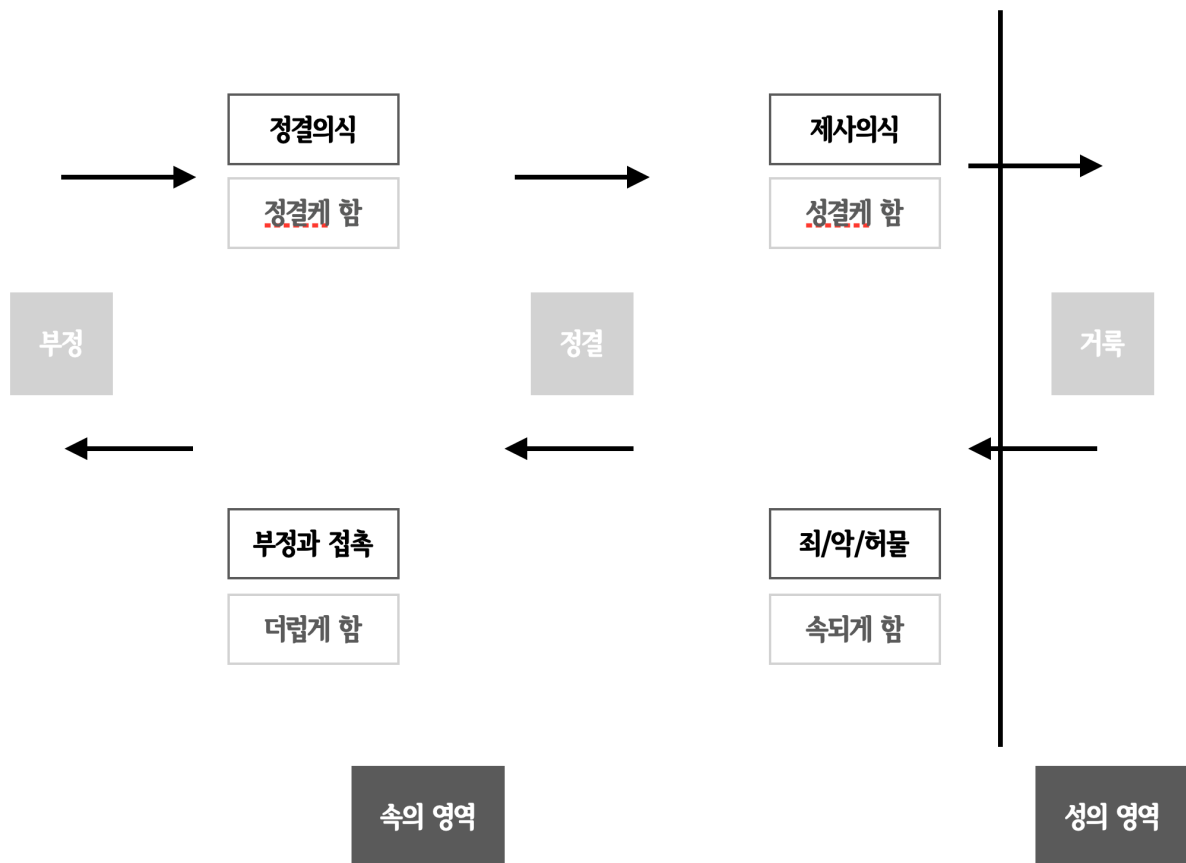
성 (거룩)	속
	정결 / 부정

-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세 가지 상태, 즉 성, 정결, 부정의 세 가지 상태 중의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정결법

5강



-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물들은 세 가지 상태 중의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 가지 상태 사이를 오고 간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거룩, 정결, 부정의 세 가지 상태를 수평선 상에서 놓고 비교해 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룩	정결	부정
제사장	일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제사용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 거룩, 정결, 부정의 특징

- 정결은 자신의 상태를 다른 것에게로 전이시키지 않습니다.
 -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정결이 시체를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 부정은 전이성이 있습니다.
 - 부정한 시체는 정결한 사람에게 닿을 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 거룩과 부정의 두 상태는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한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레7:20~21; 22:3 등)
 - 제사장이거나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자들은 시체의 부정에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레21:1~4; 민6:6~8 등).

● 정결법 정리

- 거룩, 정결, 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태입니다.
- 정결은 거룩, 부정의 중간 상태이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은 전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의 전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 허락받지 않은 자가 거룩을 침범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거룩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 정결의 규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레위기의 정결법은 영원히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정결법의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물질화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16장의 정결법은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각종 유출병 등의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 정결법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유효기간이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결법의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해서 이것이 가르치고자 했던 영적인 교훈들까지도 시효가 다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 정결법의 영적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결법 11장

5강

● 11장의 구조

1~23절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정의
1~2a절	서론
2b~8절	땅의 짐승
9~12절	물고기
13~19절	새
20~23절	날개 달린 곤충
24~47절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과 그 처리
24~28절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
29~38절	기어 다니는 땅의 생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
39~40절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
41~45절	기어 다니는 땅의 생물
46~47절	요약

● 음식법의 규정

- (1)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그 외 다른 짐승은 먹을 수 없다 (2~8절)
- (2) 오직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9~12절)
- (3) 맹금류로 추정되는 새는 먹을 수 없다 (13~19절)
- (4)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으나 관절이 있어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20~23절)



정결법 11장

5강

● 동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 정하게 되는 방법

- (1)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24~28절)
- (2) 땅에 기는 동물(예를 들면 쥐와 도마뱀)은 부정했으며, 만일 이런 동물이 용기 안에 죽어 있으면 그 용기는 부정하게 되고 따라서 용기를 부수거나 씻어야 했습니다 (29~38절)
- (3) 정결한 동물이 자연적 원인으로 죽게 될 경우 부정하게 되어 먹기에 합당치 않게 되며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39~40절)

●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

- 임의적 기준 : 이 견해는 구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구분을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나 해석이라기보다는 해석의 포기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 제의적 기준 : 이 견해는 어떤 짐승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것이 이방 제의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고대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이방 제의에서 돼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결정적인 문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소와 양과 염소 등의 제물용 짐승들이 주변 족속들에게 사용되는 경우들도 역시 많다는 점입니다.



정결법 11장

5강

- **위생적 기준** : 이 견해는 고대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석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정결하다고 언급된 짐승들이 꼭 위생학적으로 더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 둘째, 이처럼 어떤 짐승은 원래부터 위생학적으로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 혹은 불결하다는 견해는 하나님의 창조가 좋았다는 선언에 의문을 품게 만들 뿐입니다.
 - 셋째, 구약성경은 부정한 짐승들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넷째, 정말 위생과 건강이 음식법의 핵심 사항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식물의 경우에는 이런 구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음식의 비중은 식물이 육식보다 큼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위협도 식물이 훨씬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단 한 곳에서도 식물의 섭취와 관련해서는 율법을 주신적이 없습니다.
- **상징적 해석** : 전통적으로 상징적 해석 역시 위생적 해석만큼이나 음식법 해석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예시로 불결한 짐승은 죄인의 상징적인 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해석들이 알레고리적 성향을 띠거나 너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의 주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 레위기 11장과 신약

-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언약과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출19:6). 음식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음식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 신약 시대에 와서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의 구분이 철폐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구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도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 신약 이후 성도들은 더 이상 음식을 표식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롬13:12~14; 갈5:19~26; 엡4:17~24; 벧전4:1~11). 레위기의 음식법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 12장의 구조

1절	서론
2~5절	출산으로 발생한 부정
2~4절	아들을 낳았을 경우
5절	딸을 낳았을 경우
6~7절	출산 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8절	가난한 자가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 12장의 내용

- 이 본문은 출산으로 인해 야기된 부정(2~5절)과 그 부정의 해결(6~8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해 야기된 부정은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와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를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 :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습니다. 산모는 33일의 “피가 정결해지는 기간”을 더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따라서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총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 :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의 경우의 두 배인 66일 동안의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총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 6~8절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제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불어 번제도 드렸습니다. 이때 속죄제물과 번제물로는 각각 비둘기 한 마리와 양 한 마리가 드려졌습니다 (6~7절).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는 비둘기 두 마리로 각각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8절).

정결법 12장

5강

● 출산으로 인한 부정 본문의 난제

- 출산이 왜 부정한 것인가?

- 이에 대해 레위기 본문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이 유출(레15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은 레12:2,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는 문구를 통해서 그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유출은 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 이 점은 앞의 정결법 개관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정결이 정상 상태와 비슷한 개념이고 부정은 그 반대 개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설명이 됩니다. 즉, 이유야 어찌 되었든 몸에 유출이 있는 것은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은 그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유출 현상을 일으키며 출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전까지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출산으로 인한 유출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왜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의 부정의 기간은 남자 아이의 두 배인가?

-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본문 속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1)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
- (2) 여자 아이의 배아가 형성되는 기간이 남자 아이보다 길기 때문
- (3) 여아 출산으로 인한 피의 유출 기간이 남자 아이의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거나 그 유독성이 더 강했기 때문
- (4) 여자들은 죄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출산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
- (5) 여자 아이들은 나중에 그들 자신이 또 산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의 유출로 인한 부정과 자신들이 나중에 엄마가 돼서 출산할 때 흘리게 될 유출로 인한 부정을 합산해서 남자 아이보다 두 배의 부정의 기간을 치르기 때문

●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 우리가 정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문들을 다루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부정이 꼭 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 출산은 창조 때부터 축복이었습니다 (창1:28). 또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127:3~5). 반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좋지 못한 상태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성경의 많은 본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15~16장; 삼상1장; 레20:20; 신28:18 등). 또 현재 본문에서도 결코 출산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유출로 인해 산모에게 부정을 야기하고, 부정은 반드시 정결의 기간을 엄수하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산모는 비정상적인 부정의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거룩한 것에서 분리되어야 했고, 비정상적인 상태,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결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 레위기 12장과 신약

- 누가복음 2:21~24은 예수님의 할례와 마리아가 출산 후 행한 정결의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레위기 12:3(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의 규례대로 제 팔일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께서서는 비둘기로 예수님 출산에 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가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레위기 11:44~45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도 닮아야 하지만 그분의 긍휼도 닮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골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정결법 12장

5강

• **마5: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공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공홀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닮아가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웃을 향해 베푸는 공홀이 넘침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홀과 은혜와 자비 또한 넘칠 것입니다.

● 결론

- 구약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함을 교훈합니다.



과제 1

레위기 14~16장 읽기

과제 2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 적어보기